

독일의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

아동 성학대에 대한 독일정부의 전쟁 선포

김 영 희,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 사례판정 위원

2010년 3월 24일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내 아동 성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 성학대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 담당관”에 독일연방가족부 장관을 지낸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박사를 임명함으로써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더 이상 아동 성학대를 일부 엽기적인 범죄자의 예외적인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근절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2011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초대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전화 상담이나 서신 등을 통해 접수된 아동 성학대 생존자들과나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권고 형태의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연방정부와 아동 성학대에 관한 원탁회의에 제출하였다. 또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캠페인을 통해서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촉구하였다.

2012년 10월

[I. 들어가기]

독일에서는 아동 성학대와 관련하여 연간 10,000건 이상의 고소 사건이 있다. 전문가들은 신고율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연간 80,000 내지 300,000건의 아동 성학대가 독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 3월 24일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내 아동 성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 성학대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 담당관(이하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¹⁾”을 임명했다. 첫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에는 전 베를린 상원의원이자 전 연방가족부장관인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박사가 임명되었다.²⁾

[II.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의 임명 배경]

유럽에서 현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9세기에 이미 아동 성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프로이트는 노이로제 환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모든 계층에 걸쳐 아동 성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노이로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러한 자신의 발견을 자신의 초기 저서에서 한 번만 언급하였고, 그 이후의 저서에서는 이것을 아동의 상상의 산물로 치부하였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선회한 것은 당시 의료계가 노이로제의 원인에 대한 프로이트의 초기 입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³⁾

유럽에서 현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9세기에 이미 아동 성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프로이트는 노이로제 환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모든 계층에 걸쳐 아동 성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노이로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러한 자신의 발견을 자신의 초기 저서에서 한 번만 언급하였고, 그 이후의 저서에서는 이것을 아동의 상상의 산물로 치부하였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선회한 것은 당시 의료계가 노이로제의 원인에 대한 프로이트의 초기 입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³⁾

이후 아동 성학대의 문제는 유럽에서 거의 100년 가까이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멀어졌다가 1988년 네덜란드 학자인 넬 드라이에르가 유럽 전역에 걸친 조사에서 여아 및 남아에 대한 성학대의 심각성을 보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드라이에르의 연구는 당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으로부터도 심한 공격을 받았다. 1992년 독일 학자 디르크 방에는 독일 여아 4-5명 중 한 명, 남아 10-12명 중 한 명이 아동 성학대를 당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방에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조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이 조사결과에 대해 거의 언급, 인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1997년에 처음으로 독일연방가족부가 실시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방에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독일에서 아동 성학대 피해사례가 광범위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렇듯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도움을 주어야 하는 전문가 집단조차 사회 전체에 만연된 아동 성학대 문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동 성학대의 실상을 직시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그 결과, 지금도 아동 성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여러 명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및 조사결과와 198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아동 성학대 생존자 자조모임인 ‘빌트 바서(Wild Wasser)’, ‘돌레 디른스(Dolle Deerns)’, ‘또 아동 성학대 상담기관인 ‘짜르트비터(Zartbitter)’와 일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이제 독일에서는 아동 성학대의 문제가 더 이상 가끔씩 신문에 오르내리는 예외적인 엽기적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적극적으로 근절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10년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의 임명은 바로 독일정부의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 성학대 피해사례가 광범위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렇듯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도움을 주어야 하는 전문가 집단조차 사회 전체에 만연된 아동 성학대 문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동 성학대의 실상을 직시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Ⅲ.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의 업무와 업무수행 원칙

1.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의 업무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성학대 생존자를 위한 중앙 상담기관의 역할. (2) 아동 성학대 문제의 진상 규명 (3) 기관 및 가족 내 아동 성학대 생존자를 위한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을 위한 제언.

- (1) 중앙상담기관으로서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생존자들의 수많은 신고, 관심 및 요구 사항 등을 접수하고, 이들에게 지원 가능한 구조 방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생존자들은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과 서면으로 혹은 전화 상담을 통해 접촉을 할 수 있었다. 전화 상담소는 다년간 아동 성학대 사례의 처리 경험이 있는 심리학, 사회교육 및 의학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운영하였다.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의 임기 동안 생존자들의 서면 내지 전화 신고가 20,000건 이상 있었다.

(2) 생존자들과의 대화와 편지 등을 통해 밝혀진 아동학대의 실상은 사적 및 공적 영역의 아동 성학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또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기존의 상담기관과 관련 단체들의 경험과 자료들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이외에도 최신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 자료들을 보완했다.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이 한 조사로는 '기관 내 여아 및 남아에 대한 성적 학대관련 연구'와 상담기관 및 심리상담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있다.

(3)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위의 과정들을 기초해서 작성된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생존자들을 위한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 방안들에 관한 제언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2011년 5월 24일 연방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외에도 아동들을 성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개선 방안들도 담고 있다.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박사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으로 일했는데, 이는 원탁회의에서 본인이 제안한 조치들의 실행 및 생존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2. 업무 수행 원칙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과 협동성의 4가지의 주요 원칙을 준수하였다.

1) 투명성

업무 개시 시점부터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대중에게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명확히 표현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생존자들과 정치권 및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입장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주목표로 삼았다.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도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의 업무 투명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 이 홈페이지는 국민들에게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과 그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또 여기서는 아동 성학대 관련 당사자나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아동 성학대 생존자들이 직접 제기한 사안들을 다루었다.

2) 비밀 보장

비밀 보장과 익명성은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에게 제출된 생존자들의 정보나 보고, 제언들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었다. 생존자들의 정보가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생존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비밀 보호가 보장되었다. 이 원칙은 익명으로 전화 상담을 해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면 등으로 질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 등이 노출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개인정보보호의 규정들은 모든 시점에서 준수되었다.

3) 전문성

전화 상담기관의 담당자들은 아동 성학대 문제에 관해 다년간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심리학, 사회교육, 의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전공했다. 이들은 모두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이 개설한 특별 교육을 이수했고, 정기적인 감독을 받았다.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자신의 업무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을 했고, 웹상의 토론이나 상담소에 제출되는 의견이나 정보의 문서화, 관련 조사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였다.

4) 협력성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아동 성학대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이들의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수용하였다. 다른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및 의견 교환이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에게는 특별히 중요했다. 아동 성학대 생존자들의 제안과 더불어 이와 같은 방식에 기반 한 제안들이 생존자들의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 방안에 관한 권고에 반영이 되었다.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이러한 권고를 연방정부와 원탁회의에 제출하였다.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아동 성학대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이들의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수용하였다. 다른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및 의견 교환이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에게는 특별히 중요했다.

【 IV.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에게 접수된 아동 성학대 사례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 】

아동 성학대 생존자나 관련 당사자들은 독일연방 전역에서 통용되는 0800-2255530에 전화하거나 서신 형태로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었다. 성학대에 관해 다년간 경험을 하고 해박한 전문지식을 지닌 사회교육, 심리학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전화 상담을 하고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들은 생존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더

심화된 지원이나 상담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전화를 건 당사자의 요구 사항들은 전화상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리되었고,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 익명으로 기록, 평가되었다.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울림대학병원의 아동청소년정신과의 예르그 엠 페게르트 주임교수 연구팀에 접수된 사례의 분석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아동 성학대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 산하 상담기관에 접수된 사례들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2010년 4월 9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1. 전체적 조사 결과(총 6,300건)

17,565의 상담 전화나 편지 중에 조사에 유의미한 6,300건의 신고를 분석(중복 전화, 문서화하는 것을 거부한 사례, 장난 전화, 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 본 전화 등을 제외한 숫자임)

17,565의 상담 전화나 편지 중에 조사에 유의미한 6,300건의 신고를 분석(중복 전화, 문서화하는 것을 거부한 사례, 장난 전화, 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 본 전화 등을 제외한 숫자임)

(1) 전화나 편지로 신고한 사람들의 인적 구성

- 66.3% 피해 당사자
- 16.2%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
- 0.6% 가해자
- 0.4% 가해자와 관련된 사람
- 16.5% 성학대와 무관한 사유 등으로 연락한 사람

(2) 신고인의 성별

65% 여성, 35% 남성

(3) 신고인의 연령

신고인의 평균 연령은 46세로, 최연소 신고인은 6세의 남아였고, 최고령자는 89세였다.

(4) 신고인들의 현주거지

87% 구독일연방 지역, 13% 신독일연방 지역

(5) 신고인들의 도농 주거 비율

64% 도시 거주, 36% 농촌지역 거주

2. 피해 당사자와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고 내용 분석 결과(총 5,224건)

(1) 아동 성학대의 발생 시점

거의 90%의 피해 사례가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2) 아동 성학대의 발생 빈도

89%가 수차례 혹은 다년간에 걸친 학대 경험을 보고했고, 11%만 성학대가 한 번에 그쳤다고 진술했다.

(3) 아동 성학대의 양태

96%가 신체적 접촉이 포함된 아동 성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4) 아동 성학대가 발생한 장소

56.6% 가족

29.3% 기관(학교 교회 등)

8.4% 사회적 환경(이웃 등).

5.7% 모르는 사람

(5) 가해자의 성별

87.6% 남성

6.2% 여성

6.2% 여러 명의 남성 및 여성 가해자

(6) 기관 내 아동 성학대 관련 결과(1,095건)

기관 내 아동 성학대의 60%는 교회(신구교 모두 포함)에서 일어났다. 이 중 70%의 아동 성학대가 가톨릭교회(가톨릭 학교 및 아동보호시설 포함)에서 이루어졌다. 의료시설(병원 정신과 등)과 스포츠단체에서의 아동 성폭력도 보고되었다. 유치원이나 교육시설에서의 성학대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되었다.

(7) 가족 내 성학대 가해자

50.5% 친아버지

9.7% 친어머니

9.3% 의붓아버지

9.2% 삼촌

8.7% 남자형제

5.8% 할아버지

기관 내 아동 성학대의 60%는 교회(신구교 모두 포함)에서 일어났다. 이 중 70%의 아동 성학대가 가톨릭교회(가톨릭 학교 및 아동보호시설 포함)에서 이루어졌다. 의료시설(병원 정신과 등)과 스포츠단체에서의 아동 성폭력도 보고되었다. 유치원이나 교육시설에서의 성학대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되었다.

(8) 아동 성학대의 영향(한 가지 이상도 선택 가능)

- 43.1% 신체적 영향(신경증적 요통 혹은 복통, 설사 등)
- 41.6% 인간관계나 친밀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음
- 30.0% 근로능력의 저하(집중력 장애 또는 직업불능)
- 29.2% 플래시백 또는 악몽에 시달림
- 17.3% 신체 또는 성 관련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음
- 17.1% 낮은 자존감 문제
- 13.2% 삶의 질이 낮아짐

(9) 아동 성학대를 극복하는 데 장애가 된 요소

-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
- 아동 성학대를 터부시 하거나 이에 대한 사려 깊지 못한 사회의 대응
-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 피해 당사자 본인의 처리하기 힘든 감정들
- 가해자와 계속되는 접촉
- 종교적 신념

(10)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주제(생존자들의 주된 관심사)

1. 심리치료와 상담
2. 공소시효 문제
3. 보상 문제

[V.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캠페인]

초대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인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박사가 그의 재임시절인 2010년 10월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아동 성학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창피함과 죄의식 때문에 피해 사실을 오랫동안 비밀에 부친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1. 캠페인의 시작 배경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아동 성학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창피함과 죄의식 때문에 피해 사실을 오랫동안 비밀에 부친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성학대에 대해 말하는 것을 통해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고, 그의 우월한 권력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동 성학대에 관해

말하는 것을 통해 아동 성학대를 경험한 다른 생존자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 말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

생존자들과 생존자들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서 아동 성학대를 알게 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캠페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침묵을 깨고 독일 전역에 설치된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의 전화 상담소에 연락하도록 고무되었다.

아동 성학대의 문제를 그때 그때 언론을 한시적으로 뜨겁게 달구는 개별적 스캔들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아젠다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의 입장이었다. 베르크만 담당관은 캠페인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생존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 캠페인의 목표다."

이 캠페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침묵을 깨는 사람은, 가해자의 힘을 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종속 관계에 대한 이해를 내포하고 있는 이 슬로건은, 생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종속 관계를 타파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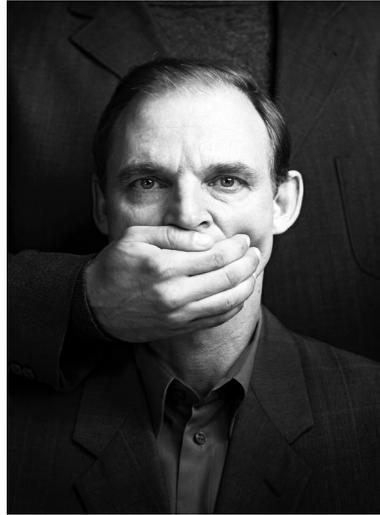
이 캠페인의 중심 소재는 어떤 손으로부터 강제로 입막음을 당한 한 중년이다. 이 소재는 한 번은 여성으로, 한 번은 남성으로 대체되었는데 아동 성학대 근절 캠페인 광고에 아동이 아닌 중년의 남녀가 모델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들이 성인된 이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중년의 생존자들은 그 나이가 되어서도 가해자의 힘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침묵을 깨는 자는 가해자의 힘을 깬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 광고는 생존자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지막지해 보이는 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독려했다.

이 캠페인은 미디어의 반향 면에서나 성학대 생존자들에게 미친 영향 면에서나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광고는 각기 상이한 방영 횟수 및 방영 지역을 가진 14개의 공영 및 민영 방송을 통해 독일 전역에 방영되었다. 독일 공영방송인 ZDF에 10번이나 광고를 방영하였는데, 이것은 120만 명의 시청자가 시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로 2만여 명의

아동 성학대의 문제를
그때 그때 언론을 한시적으로
뜨겁게 달구는 개별적 스캔들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아젠다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의
입장이었다.

생존자⁴⁾가 자신의 침묵을 깨뜨리고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 캠페인은 2010년 9월에서 2011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부 방송에서는 개별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고, 관련 포스터도 계속 배부되고 있다.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광고〉



[VI. 맺음말]

사회적 터부의 그늘 아래서
독버섯처럼 커 가는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아동 성학대의 예방과
아동 성학대 생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독일의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은 생존자들의 요구 사항들을 권고⁵⁾의 형태로 “아동 성학대에 관한 원탁회의”와 연방정부에 제출한 2010년 5월자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생존자들은 이를 통해, 아동 성학대를 다루는 정치적, 사회적 과정에 직접 관여할 기회를 얻었고,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이 이들의 요구 사항이나 메시지 등을 정치권과 사회에 제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제의 시행은 아동 성학대 문제에 관한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동 성학대 범죄에 대해 터부시 하고, 이 범죄의 만연도나 피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터부의 그늘 아래서 독버섯처럼 커 가는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아동 성학대의 예방과 아동 성학대 생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독일의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후주 |

- 1) 독일에서는 학계나 실무 등에서 성폭력과 성학대의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독일 정부는 이 기구를 '성폭력' 대신 '아동 성학대'의 개념을 사용하여 명명하였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보다는 '성학대'의 개념이 널리 쓰이고 있고, 성 '폭력'의 개념이 자칫 '외적인 폭력' 또는 '신체적 폭력'의 한정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성폭력의 개념이 아닌 성학대의 개념이 채택되었다.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이 규명 대상으로 하는 '아동 성학대'는 아동에게 시도된 또는 그 범행이 완료된 모든 성적 행위 내지 접촉을 의미한다. 이 개념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에 신체 접촉이 없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예를 들어, 아동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게 하는 등의 행위) 등도 포함된다.
참조:<http://beauftragter-missbrauch.de/course/view.php?id=143>, <http://beauftragter-missbrauch.de/course/view.php?id=18>
- 2) "아동 성학대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 담당관"은 한시적 기구로서, 초대 담당관인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박사는 2010년 3월 24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근무했다. 그 이후에는 명칭이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에서 '아동 성학대 문제에 관한 독립담당관'으로 변경되었다. 2011년 12월 1일, 요하네스 빌헬름 뢰리히가 최장 2013. 12. 31.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 자리에 임명되었다. 아동 성학대 문제 담당관의 임무는 아동 성학대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아동 성학대 근절을 위해 권고된 여러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 3) Enders, Ursula (Hg.)(2011): Zart war ich, bitter war' s. Handbuch gegen sexuelle Gewalt an Maedchen und Jungen (4.Aufl.). ss.14-15.
- 4) 앞에서 소개한 울름대학 연구조사는 2010년 4월 9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이때까지 아동 성학대 진상규명 담당관에게 접수된 총 신고 건수가 17,565였다. 여기서 '2만 여명의 생존자'와 수적 차이가 있는 것은 울름대학의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베르크만 담당관의 임기가 끝나는 2011년 10월까지 아동 성학대 신고접수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참조<http://beauftragter-missbrauch.de/course/view.php?id=28> Kampagne "Sprechen hilft"
- 5) 이 권고에는 생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상담, 공소시효의 문제 및 이들을 위한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아동성학대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연구조사, 관련 기구에 대한 권고사항 등이 들어있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크리스토프 폴만,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신진욱 안두순 안석교 안인경 이삼열 정범구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info@fes-korea.org

<http://www.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korea.org>)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2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